

지역 소식 통

정읍시, 난임 부부 위한
한방 치료 비용 지원

정읍시가 난임 부부를 위한 한방 치료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 신청 대상자로 선정되면 최대 18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4개월간 한약·침구·뜸 치료가 진행된다.

시 보건소는 도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난임 진단을 받은 부부(사실혼 포함)를 대상으로 한방 난임 치료 비용을 지원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사업을 통해 난임 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임신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전통 한의학 치료를 제공할 계획이다.

신청일 기준 전북특별자치도에 거주하며 난임 진단을 받은 부부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신청은 여성의 주소지 시군 보건소에서 접수할 수 있으며, 한의사회를 통해 대상자로 확정되면 한방 난임 치료를 받을 수 있다.

치료 과정은 4개월 동안 △한약 △침구 △뜸 치료를 시행한 후, 추가로 2개월간 경과 관리·임신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정읍=김대환기자

정읍시, 지역특화품목 비닐 하우스 지원사업 신청 접수

정읍시가 농산물 유통 환경 변화와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2025년 지역특화품목 비닐하우스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수박, 토마토, 방울토마토, 딸기, 애호박, 오이, 감자 등의 원예 작물 재배 농가와 함께 만감류, 애플망고, 파파야 등 아열대 과수 재배를 희망하는 농업인으로 진행된다. 사업연도 기준 3년 이상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또는 품목 광역조직과 출하 약정을 체결한 농업인이 신청할 수 있다.

지원 항목은 단동·연동 비닐 하우스 신축, 관수시설, 자동개폐기 설치 등이며 비닐하우스 면적은 680㎡에서 최대 4000㎡까지 지원된다.

사업 신청은 3월 21일까지 해당 사업 대상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가능하다.

/정읍=김대환기자

'서해안철도 건설 정책포럼'

전북자치도·전라남도 등 지자체 공동 주최·주관... 18일 국회서 개최

서해안철도 건설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논의하는 '서해안철도 건설 정책포럼'이 오는 3월18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다.

이번 포럼은 윤준병·신영대·이원택·김원익·이개호·서삼석 국회의원과 전북특별자치도, 전라남도, 고창군, 군산시, 부안군, 목포시, 함평군, 영광군 등 지자체가 공동 주최·주관한다.

포럼은 서해안철도 노선의 제5차 국

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을 위한 전략 방안을 주제로 진행되며, 철도 전문가와 지역 관계자들이 참여해 심도 있는 논의를 펼칠 예정이다.

포럼에서는 연세대학교 김진희 교수가 발제를 맡아 서해안철도의 국가적 가치와 필요성을 설명하며, 이어지는 토론에서는 전북특별자치도와 전라남도 관계자 및 전문가들이 참여해 다양한 의견을 나눌 계획이다.

지역구 및 지역연고 국회의원, 전북

특별자치도지사, 전라남도지사 등 주요 인사와 지역 주민 1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포럼은 서해안철도 건설의 타당성과 가치를 정부 및 관계기관에 알리고, 정책적 결정을 촉구하기 위한 것으로 서해안철도의 중요성이 재조명되고,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되기 위한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고창=김영식기자

'찾아가는 행복장터', 농촌 주민 맞춤형 이동 장터

정읍시, '식품 사막화' 농촌 지역에서 오아시스 역할 토크

정읍시가 운영하는 '찾아가는 행복장터'가 농촌 주민들의 생활 편의를 높이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특히 이

동이 어려운 고령층을 위해 마을을 직접 방문하는 맞춤형 이동 장터로 자리 잡았다.



정읍시가 운영하는 '찾아가는 행복장터'가 농촌 주민들의 생활 편의를 높이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찾아가는 행복장터'는 2021년부터 정읍시와 생골농협공동조합이 협력해 운영하는 사업으로, 3.5톤 규모의 이동 판매 차량이 농촌 마을을 직접 방문해 생필품을 판매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현재 이평면, 정우면, 북면 지역에

서 매주 화요일과 수요일 하루 4개 마을을 순회하며 주민들에게 필요한 물품을 제공하고 있다.

이동 판매 차량에는 식료품과 생필품 등 120여 개 품목이 구비돼 있으며, 모든 상품은 생골농협 하나로마트와 동일한 가격으로 판매된다.

이용자 대부분은 자가용이 없거나 거동이 불편한 고령층으로 콩나물, 김 등 반찬거리부터 과자 같은 기호식품까지 다양한 물품을 편리하게 구매할 수 있다.

특히 이 장터는 단순한 이동 판매를 넘어 농촌 주민들의 생활 편의 증진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있어 지역사회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

/정읍=김대환기자

정읍시, 정신질환자 자립 지원 '샘초롱 클럽하우스' 개소

정읍시가 정신질환자의 사회적 자립과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샘초롱 클럽하우스'를 개소했다.

시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정신질환자의 자립과 회복을 돕기 위한 공간인 '샘초롱 클럽하우스'를 조성하고, 지난 13일 개소식과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유호연 부시장, 순회경 보건소장, 인산의료재단 김성희 이사장, 유관기관 관계자·등록회원 등 120여 명이 참석해 클럽하우스의 역할과 운영 방향을 공유했다.

'샘초롱 클럽하우스'는 시가 정신건



강북지센터 기반 정신질환자 회복지원사업 선도 지자체로 선정되면서 구축된 시설로 정읍시 고용복지플러스센터 1층에 교육실, 회의실, 상담실, 조리실 등을 마련해 리모델링을 완료

했다.

시 정신건강복지센터는 클럽하우스 운영을 통해 정신질환 고위험군을 발굴하고 지속적인 사례관리·정신건강 서비스를 제공해 △일상생활 및 건강관리 △취업 훈련 및 지원 △자립 체험 주택 운영 △동료지원가 양성 등 다양한 회복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샘초롱 클럽하우스의 지원사업은 정읍시에 거주하는 성인 정신질환자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정읍=김대환기자

"세세한 결산, 건전한 재정 운영"

고창군의회, 202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위촉

고창군의회(의장 조만규)는 지난 14일 군의회 의정실에서 202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위촉장을 수여했다.

이날 위촉된 결산검사위원은 임정호 의원(대표의원)과 오세환 의원, 그리고 정만수 김완철, 신학준 김재관 백재욱, 김형연 정명숙 재무·회계 분야에 능통한 민간 전문가 7명을 포함하여 총 9명으로 구성되었다.

이번에 위촉된 결산검사위원들은 3월 14일부터 4월 2일까지 20일간 고창군의 2024 회계연도 세입·세출의 결산,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결산서 첨부서류, 금고의 결산 등 예산집행 전반에 대해 건전성 및 효율성을 검사하고 분석해 검사 의견을 제출하게 되며, 결산 결과는 6월 개최 예정인 제1차 정례회에서 승인 절차를 거쳐게 된다.



다.

조만규 의장은 "예산이 당초 목적대로 적법하게 집행됐는지, 부적절한 집행이나 낭비된 사례는 없는지 세세하게 살펴 건전하고도 투명한 재정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한 임정호 대표위원은 "결산검사가 재정집행에 대한 주민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합리적인 재무운영으로 연결되는 만큼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고창=김영식기자

부안해경, 무안항공대와 업무협약·표창장 수여식

부안해양경찰서(서장 서영교)는 2024년 해공합동단속 우수사례 전국 1위로 선정된 기념으로 무안항공대와의 지속적인 협업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 및 표창장 수여식을 진행했다.

특히 관내에서 발생하는 고질적인 민원인 불법 잡수기 조업은 지역 주민들의 피해를 속출시켜 해경의 단속 활동에 대한 필요성이 강조되지만 해상과 야간 시간대에서 발생하는 불법 조업은 육상에서의 단속에 한계가 있다.

이번 협업을 통해 무안항공대는 항공기의 열상 카메라를 활용 해상에서 발생하는 불법 잡수기 조업을 효과적으로 적발할 수 있다. 열상 카메라는 야간에도 정확한 위치와 불법 행위를



신속하게 포착할 수 있어 단속의 효율성을 크게 높일수 있다.

서영교 서장은 "무안항공대와의 협업을 통해, 해상 및 야간 시간대의 불법 행위를 보다 신속하게 파악하고,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부안=김석진기자

부안군의회, 새마을운동 부안군지회와 간담회 개최

부안군의회(의장 박병래)는 지난 14일 오전 부안군의회 의정실에서 새마을운동 부안군지회(회장 권명식)와 간담회를 갖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박병래 의장을 비롯한 군의원들과 새마을운동 부안군지회 임원진이 참석해 새마을운동의 주요 활동을 공유하고, 주민 복지 증진 및 지역 발전을 위한 협력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눴다.

특히, 권명식 회장은 회원들의 고령화로 인해 봉사활동에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며, 지속적인 활동을 위한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앞으로 군의회와 협력을 강화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겠다는 뜻을 밝히며, 간담회를 마련해 준 부안군의회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박병래 의장은 "새마을운동이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봉사로 이뤄지는 만큼 군의회에서도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부안=김석진기자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